

초등학교 음악 수업 실태 분석

김 명 숙*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 관찰을 통해 음악 수업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시간 활용과 교사의 수업 방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2명의 교사이며, 연구 분석은 양적·질적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음악 수업 유형별 시간 비율을 분석하였고, 질적 분석에서는 교사의 수업 진행 방법을 도입, 전개, 정리 세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주제어: 초등학교, 음악 수업, 수업 분석

차 례

- I. 연구의 목적
- II. 수업 분석의 필요성
- III. 연구 방법
- IV. 두 교사의 음악 수업에서 양적 분석
- V. 두 교사의 음악 수업에서 질적 분석
- VI. 결 론
- 참고문헌

* 영남대학교 박사과정

I. 연구의 목적

수업은 단지 교사가 수업을 잘 진행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즉 수업은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사의 교수 활동과 학습자의 학습 활동이 교육 내용 또는 교수 매체를 통해서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다(주삼환외 4인, 1999, p.17). 특히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및 관심, 그리고 이해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 수업 사태에서 교수·학습 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면적인 과정이 된다. 따라서 수업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수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교실 안을 직접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수업 관찰은 교수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및 분석, 그리고 평가에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리고 수업 관찰의 궁극적 목적은 교수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효과적인 수업 개선을 위해서는 면밀한 수업 관찰을 통해서 수업의 기술적 능력 향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초등학교 음악 수업이 효과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음악 수업에서 음악을 왜 가르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교사가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친다는 것은 음악이라는 주된 실재를 통해 음악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시키고, 학생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능력 및 음악적 사고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가 어떠한 교수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음악을 이해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지도 내용이나 지도 방법 등이 좋은 음악 수업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 관찰을 통해 음악 수업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활동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별 시간 활용과 교사의 수업 방법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음악 수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유형들을 분류하여 그 유형들의 시간 활용은 양적 연구 방식으로, 그리고 교사가 어떻게 음악 수업을 진행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 방식을 통해 초등학교 음악 수업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II. 수업 분석의 필요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수업 개선은 보다 정확한 수업 관찰을 통한 피드백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수업 분석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수업시간에 학생 및 교사의 사회적·정서적·대인관계 면에서 적응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적합하다. 둘째, 교사의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및 수업에 관한 능력 및 수업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유용하다. 셋째, 다양한 수업 상황, 수업 내용, 교사와 학생의 개성에 관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 넷째, 수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변인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수업에 관한 양적·질적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기에 적합하다(배호순1991).

이와 같이 수업 관찰의 궁극적 목적은 교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수업 관찰이 필요한 이유는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과 학습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서 질 좋은 수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돕는데 있다. 아이스너(Eisner, 2001, p.125)는 수업 관찰을 의도적 차원, 구조적 차원, 교육과정 차원, 교육적 차원, 평가적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각 교과들이 복잡하고 미묘한 특징을 섬세하게 식별하여 기술하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예술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가르치는 것에 대한 사례가 갖는 일반적인 유형을 인식하고 그것에 적절한 기준에 따른 수업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음악을 왜 가르치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가르치는가에 따라 음악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최근 학습에 관한 관점은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인지적 이론을 전개하는 것보다 학습자가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이러한 관점에 근거한 학습은 학습자가 정보를 선택하고, 보유하고, 변형시키며 나아가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인 셈이다(석문주, 2001, p.1.).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새로운 경험을 더해감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성한다. 학습자는 교과로부터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 들여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관련시켜 능동적으로 의미를 조정한다.

학교에서 음악 교육은 음악이라는 주된 실재를 가지고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시키며,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음악적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음악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만드는 일에 중점을 두고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음악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이해를 전달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 내용이나 방법 등이 교육의 중요한 목표 설정의 근거가 된다. 결국 수업을 관찰한다는 것은 수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수업 개선의 한 가지 방법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업 관찰 분석에는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양적 분석은 계량적 접근 방법을 뜻하고, 질적 분석은 수업의 실제 상황을 진술하는 방법이다. 즉 수업 관찰에 있어 양적 연구는 수업의 변인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계량화하며 수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인 반면, 질적 연구는 교실 생활 및 수업 사태에서 벌어지는 각종 의미들을 설명하고 해석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의 중요성과 영향력 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기간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음악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2명이다. 두 교사 모두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하였다. A교사는 심화로 교육학을 전공하였다. 반면 B교사는 심화로 음악교육을 전공하였고, 현재 교육대학원 초등 음악교육과에 재학 중이다.

그리고 연구 대상 학교는 음악 교과전담 교사제를 실시하는 학교이다. A교사는 음악교육 전공은 아니지만 학교 운영 방침에 따라 3학년과 6학년의 음악을 전담하

는 음악 교과전담 교사이다. 학교 방침 상 6학년 음악 교과는 교과전담 교사가 가르쳐야 하지만 B교사는 6학년인 자기반 음악 수업을 본인이 직접 지도하고 있다.

수업 관찰 기간은 1주일에 2회씩 총 10주 19차시 수업을 관찰하였다. 수업 시간은 학급 시간표에 따르지 않고 연구자와 실험 교사가 협의하여 상황에 따라 변경하였다. 음악 수업은 오전 중에 실시하기로 하였고, 음악 시간을 전후하여 체육 수업과 같은 동적인 수업은 피하여 진행되었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양적 분석 도구는 플랜더스(Flanders)의 언어 상호 작용법, 현경실(1999, 2000), 최은식(2001), 김명숙(2003), 황인영(2004)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제작한 분석 틀을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음악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참여 관찰, 비디오 촬영, 면담 등의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 수집 방법

1) 수업 참관 및 촬영

본 연구의 취지는 초등학교 두 교사의 실제 음악 수업 시간 활용과 수업 형태, 음악 수업 진행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는 교사에게 연구 수업의 분위기가 아닌 평상시 수업하는 상태로 진행해 주길 여러 차례 부탁하였다. 수업에 대한 관찰 및 녹화, 그리고 자료의 전사 단계를 거쳤다.

2) 교사·학생의 면담

면담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하고 면담 과정에서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질문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면담 방법은 면담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 면담 녹화 및 기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면담 후 녹화 테이프와 기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다.

3) 문서 자료

수업 분석을 위해 교사의 수업 지도안과 학생들의 학습지 등을 수집하였다. 수업 지도안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려는 목표를 확인하고 수업이 학습 목표에 적절하게 도달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자료로 이용했다. 수업 내용이 지도안과 같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수업 진행시 사용되는 교구 등을 수업 지도안과 비교하였다.

나. 분석 방법

1) 양적 분석

본 연구는 교사의 수업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업이라는 것이 교사 한 사람에게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이루어가는 형태이므로 분석 변인을 교사와 학생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교사의 수업 시간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언어적 교수행동(지시적 발언, 비지시적 발언), 비언어적 교수행동(음악 모델링, 반주), 기타(수업 공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둘째, 학생의 수업 시간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활동 내용을 아홉 가지 영역(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곡만들기, 음악듣기,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 읽기·쓰기, 응답하기, 질문하기)으로 나누었다. 또한 학습활동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개별학습, 조별학습, 전체학습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었다.

2) 질적 분석

실제 음악 수업에서 교사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가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수업 진행 방법을 도입, 전개, 정리 세 항목으로 나누어서 비디오 녹화 자료 및 전사 자료, 그리고 교사와 학생들의 면담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V. 두 교사의 음악 수업에서 양적 분석

여기에서는 음악 수업을 ‘교사중심’ 수업과 ‘학생중심’ 수업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활동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실제 음악 수업 시간 활용을 분석하였다. 수업 시간 분석은 두 교사의 19차시 수업 분량으로, A교사의 수업 시간은 총 758분 52초이며, B교사의 수업 시간은 총 739분 6초이다.

1. 음악 수업에서 교사 활동 시간

두 교사의 전체 음악 수업의 영역별·활동유형별 시간 분석은 <표 1>과 같다.

<표 1> 두 교사의 음악 수업의 영역별·활동유형별 시간 분석

영역		활동 유형	A 교사			B 교사		
			시간	총 수업시간의 비율(%)	합 계	시 간	총 수업시간의 비율(%)	합 계
교사 중심	언어적 교수 행동	1. 강의	138'54"	18.31	272'59" (35.95%)	94'30"	12.79	212'23" (28.73%)
		2. 지시	101'45"	13.42		100'20"	13.58	
		3. 비판	6'10"	0.79		2'19"	0.31	
		4. 행동교정	26'10"	3.43	351'57" (46.29%)	15'14"	2.06	278'20" (37.66%)
		5. 학생의 느낌과 생각의 수용	16'33"	2.18		7'58"	1.08	
		6. 발문	56'45"	7.48		56'13"	7.61	
		7. 칭찬	5'40"	0.67	78'58" (10.34%)	1'46"	0.24	65'57" (8.93%)
	비언어적 교수 행동	8-1. 노래 부르기	2'30"	0.33	5'10" (0.68%)	21"	0.05	7'45" (1.05%)
		8-2. 악기 연주하기	0'49"	0.11		4'9"	0.56	
		8-3. 신체 표현하기	1'31"	0.20		0	0	
		8-4. 곡 만들기	0	0		35"	0.08	
		9. 반주	0'20"	0.04		2'40"	0.36	
	기타	10. 수업공백	38'10"	5.03	38'10" (5.03%)	35'43"	4.83	35'43" (4.83%)
	합 계				394'50" (52.0%)			321'48" (43.54%)
학생 중심	활동 내용	1. 노래부르기	33'12"	4.37	364'2" (48.0%)	109'9"	14.77	417'18" (56.46%)
		2. 악기연주하기	37'58"	5.01		75'45"	10.25	
		3. 신체표현하기	2'13"	0.29		1'39"	0.22	
		4. 곡만들기	79'19"	10.46		37'50"	5.12	
		5. 음악듣기	80'51"	10.66		50'30"	6.83	
		6.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	61'22"	8.09		76'39"	10.37	
		7. 읽기·쓰기	8'48"	1.16		26'29"	3.58	
		8. 응답하기	54'30"	7.19		38'24"	5.20	
		9. 질문하기	5'48"	0.76		1'23"	0.12	
	학습 활동 유형	1. 개별학습	35'59"	4.74	364'2" (48.0%)	34'39"	4.69	417'18" (56.46%)
		2. 조별학습	54'35"	7.20		54'28"	7.37	
		3. 전체학습	273'28"	36.06		328'11"	44.40	

A, B 두 교사의 음악 수업의 영역별 시간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A교사는 교사중심 수업(52.0%)과 학생중심 수업(48.0%)이 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B교사는 학생중심 수업(56.46%)이 교사중심 수업(43.54%)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두 교사 모두 언어적 교수행동(A교사: 46.29%, B교사: 37.66%)이 교사중심 수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비언어적 교수행동(A교사: 0.68%, B교사: 1.05%)은 거의 미미한 편이다.

교사중심 수업을 언어적 교수행동과 비언어적 교수행동 순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교수행동 영역 안에서 두 교사 모두 지시적 발언(A교사: 35.95%, B교사: 28.73%)이 비지시적 발언(A교사: 10.34%, B교사: 8.93%)보다 거의 3배 이상 높은 편이다. 특히 지시적 발언에서, A교사는 B교사보다 '강의'(A교사: 18.31%, B교사: 12.79%)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A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악적 활동보다 언어를 통해 음악을 가르치려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 B교사는 다른 유형에 비해 '지시'(13.58%)가 높게 나타나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발표 등의 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지시적 발언에서, 두 교사 모두 '발문'(A교사: 7.48%, B교사: 7.61%)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물론 발문이 수업 중에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발문 내용 측면에서 두 교사 모두 학생들의 사고 발달에 도움을 주는 발문은 거의 없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단순 발문들이 많았다. 따라서 학생들의 대답도 단순히 '예', '아니오' 혹은 단답형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비언어적 교수행동은 두 교사 모두 언어적 교수 행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는 음악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음악적인 활동보다 언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교사의 모델링에 대한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다. 비언어적 교수 행동 유형에서 두 교사의 모델링(A교사: 0.64%, B교사: 0.69%)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교사는 본인이 잘 할 수 있는 음악적 활동은 모델링을 제시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두 교사 모두 자신이 없는 음악적 활동은 수업 관찰 기간 동안 한 번의 모델링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A교사의 경우 '곡만들기'(0.0%) B교사의 경우 '신체표현하기'(0.0%)와 같은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교사의 '반주'(A교사: 0.04%, B교사: 0.36%)도 매우 미미한 편이다. 물론 A교사의 경우는 수업 시간에 장구를 사용하여 장단 반주를 하는 활동은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가창 수업에서는 반주를 위해 오르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B교사의 경우는 국악 수업시간에 교실에 장구가 없어 장구 장단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는 교사의 수업 준비 과정에서 교구에 대한 준비가 소홀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르간을 반주하는 경우는 수업 시간에 종종 볼 수 있었다.

2. 음악 수업에서 학생 활동 시간

학생중심 수업은 '활동 내용'과 '학습활동 유형' 두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활동 내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A교사가 가르친 반은 '음악듣기'(10.66%), '곡만들기'(10.46%),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8.09%), '응답하기'(7.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B교사가 가르친 반은 '노래부르기'(14.77%),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10.37%), '악기 연주하기'(10.25%), '음악 듣기'(6.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A, B 두 교사 모두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몇 개의 활동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교사중심 수업에서 '음악 모델링' 비율이 아주 낮은 영역의 활동이 학생중심 활동에서 그 비율이 아주 높게 나타나거나 혹은 아주 낮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A교사가 가르친 반의 경우, 교사의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은 '곡만들기' 활동은 학생중심 활동에서 교사의 의도대로 수업이 잘 진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많은 시간(79'19", 10.46%)을 소비하였다. B교사가 가르친 반의 경우, 교사중심 수업에서 '음악 모델링'이 제시되지 않은 '신체표현하기' 활동은 학생중심 활동에서 다른 활동 영역에 비해 가장 낮게(1'39", 0.22%)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수업에서 교사의 다양한 모델링이 학생들의 음악적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문하기'와 '응답하기'를 비교해 보면, 응답에 소요된 시간(A교사 반: 54'30", 7.19%, B교사 반: 38'24", 5.20)이 질문하기에 소요된 시간(A교사 반:

5'48", 0.76%, B교사 반: 1'23", 0.1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A, B반 학생들이 수업에서 교사가 시키는 것은 잘 하는 편이지만,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족한 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학생들이 간혹 질문을 제기하지만, 대부분 음악 수업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질문이라기보다 수업 진행과 관계되는 질문, 이를 테면 “선생님 책에 적어요? 노트에 적어요?”와 같은 내용들이다.

둘째, ‘학습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A, B반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학습’(A교사 반: 36.06%, B교사 반: 44.40%)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조별 학습(A교사 반: 7.20%, B교사 반: 7.37%), 개별학습(A교사 반: 4.74%, B교사 반: 4.69%)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악 수업에서 ‘전체학습’ 시간 비율은 B교사 반이 A교사 반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V. 두 교사의 음악 수업에서 질적 분석

교사는 수업이라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한다. 교사의 수업 방법은 학생들의 특성 및 요구, 가르치는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수업 진행에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왜 가르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두 교사는 모두 교육과정에 제시된 도입, 전개, 정리의 순서로 음악 수업을 진행시키고 있다.

1. 수업 도입 부분: ‘누가 잘 기억하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

교사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의 선행학습 수준과 같은 제반 수업 조건 등을 파악하여 그들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A교사는 수업 시작을 알리기 위해 매 시간마다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하였다. 이처럼 인사를 하는 행위는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수업의 시작을 알리고, 다른 한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기위해서다. A교사가 인사로 수업

을 시작하는 것은 권위와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반 교실에서 음악실로 자리를 옮기면서 생기는 어수선했음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방편인 듯 하였다. 그러나 A반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충 건성으로 인사를 하였고, 반장의 “차렷” 구호에도 딱 짓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반장에게 다시 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인사할 때 구호는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사용하였다. 반면, B교사는 인사를 하면서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B교사는 B반 담임이기 때문에, 매시간 인사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듯하였다.

A교사는 도입부에서 학생들에게 학습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나, 전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도입 부분은 주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한 수업으로 이루어졌다. B교사 역시 대체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도입부를 진행하였다. 특히 A, B 두 교사 모두 도입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발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A교사 수업

선생님: 저번 시간에 들었던 운명 교향곡은 전부다 몇 부분으로 나눠집니까? 몇 부분?

학생들: 세 부분

선생님: 그렇지, 세 부분. 이름하여 형식이 뭐다?

학생들: 소나타 형식

선생님: 그렇지 소나타 형식.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

학생들: 제시부

B교사 수업

선생님: 운명 교향곡은 누가 작곡했다?

학생들: 베토벤

선생님: 베토벤이 작곡을 했고, 베토벤의 또 다른 음악작품 이름이 뭐라고 했지?

학생들: 운명, 합창.

다음은 가창 수업을 하면서 제재곡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생들과 함께 제재곡의 내용을 파악하는 수업의 예이다. 여기서 A교사는 제재곡을 부르기 전에 학생들이 학습 할 내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또 가사의 뜻을 정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가사 뜻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A교사의 설명은 학생들과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교사 역시 제재곡을 익히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학생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 내용들을 익히고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곡을 가르치는데 A교사는 가사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반면, B교사는 곡의 전체적인 흐름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있다.

A교사 수업

선생님: 아 ... 곡 중에 가사가 반복되어서 단조로운 느낌이 난다.
일할 때 부르는 노래 가사를 알아봤습니다. 여기 가사 중에서 '어야디야 어여차디야' 이런 소리는 무슨 소리? 손발을 맞추기 위하여 내는 소리. 그럼 거문도 뱃노래잖아. 이 노래는 뭘할 때 부르는 노래지?

학생A: 배탈 때

선생님: 배를 타서 놀 때도 있고 고기 잡을 때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 배타는 이유가 뭘까? 어장소로 어서 가세라는 말 있잖아 어장소가 어디지?

학생B: 물고기 파는 시장

학생C: 수산물 파는 시장

학생D: 도매장 같은데요.

B교사 수업

선생님: 지금까지 나온 것을 정리해보자.

1. 노동요
2. 굿거리장단
3. 메기고 받는 형식
4. 전라도 민요

선생님: 자 그러면 가사 한번 읽어 보자. 잘 할 수 있지.

수업의 도입부는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파악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준비 단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A, B 두 교사의 수업 도입 부분을 살펴보면, 두 교사 모두 전 시간의 수업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제재곡의 특성상 음악적 활동에서 선수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B교사는 도입 부분에서 전 시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보다 음악적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거나, 2차시 수업일 경우 1차시 수업과 연결하여 도입없이 곧바로 전개 부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B교사는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생들의 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두 교사의 도입 부분에서 음악적 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난 시간에 수업한 음악적 개념을 언어 중심으로 확인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대체로 수업 도입부는 제재곡에 대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2. 수업 전개 부분: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교사의 질주

수업 전개 부분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수업 마무리 전까지의 과정으로, 수업 진행 단계 중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A, B 두 교사의 수업 진행 방법은 제재곡에 대한 설명 및 발문, 학생들의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수업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학습 목표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A교사는 학습 목표를 미리 칠판에 적어두고 학생들에게 읽게 하였다.

A교사 수업

선생님: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할 거. 다 같이 한 번 읽어봅시다. 시작.

학생들: 주어진 가락을 이용해 변주곡 형식으로 곡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학생들: 변주곡 형식으로

선생님: 저번 시간에 변주곡이란 다같이 자기 자리에서 변주곡이란? 생각나는 대로. 시작.

A교사 수업

선생님: 그 때 한 번 나왔었는데. 현악기가 막 나오고, 겹쳐지는 가락 외에 나왔을 때는 뭐 뭐 세 자였는데. 기억나는 사람?

학생A: 대선율.

선생님: 대선율. 또? 다른 사람? 다 대선율?

선생님: (판서하며) 자. 오늘은 겹쳐지는 가락의 대선율을 익혀서 부분 2부 합창을 불러보자. 같이 한 번 읽어볼까?

학생: 대선율을 익혀 부분 2부 합창을 불러보자.

A교사는 칠판에 적힌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 읽어보도록 하여 오늘의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주시시켰다. A교사는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학생과 상호작용을 통해 변주의 의미를 알고, 변주곡을 창작해 보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창작 활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가지 변주 기법을 설명하였고, 창작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다. 교사는 학생들이 창작하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도하였다. 전개 부분의 수업 진행은 학습 목표에서 중요하게 제시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였다.

B교사의 수업은 전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B교사의 수업은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수업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B교사는 학습 목표를 칠판에 적으면서 읽어 보도록 하는 경우와 전 차시 학습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B교사 수업

선생님: 저 번에 시간이 급해서 중간에 그만 두었는데 어느 정도 살펴보고 오늘 할 것을 배운다. 자. 하기 전에 물어보자. 너희들 중에 취타하고 대취타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학생A: 네. 선생님. 대취타는 임금님이 행진할 때 나오는 음악이고 취타는 그런 음악을 실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편곡한 것입니다.

선생님: 한번 보면 악기 구성상에서 거의 비슷하겠지만. 가락 한번 들어보자.

B교사 수업은 전 차시 수업에서 배운 것에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을 전개하였다. 교사가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수업 진행 중간에 한번씩 언급하지만,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수업의 전개 부분이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음악적 개념이나 다양한 음악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대체로 음악 교육학자들은 음악의 이해 영역은 활동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수업의 전개 부분을 분석한 결과, 두 교사는 음악적 이해 영역을 가르치는데 있어 언어적인 활동이 많은 반면, 음악적 활동은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음악적 활동의 경우에도, 대부분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정도이다. 결국 두 교사의 수업은 음악적 이해와 활동을 분리하여 수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수업의 진행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보다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음악 활동을 진행하였다.

교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A, B 두 교사는 다양한 교구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준비와 사용을 위해 수업 공백이 발생되기도 하였다. 두 교사가 수업에 사용하는 악기는 장구, 단소, 리코더, 오르간 정도이다.

전공이 음악 심화가 아닌 A교사는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내용들을 교수·학습의 중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즉 A교사의 교수 전략은 교과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과 교사용 지도서의 학습 내용을 충실하게 가르치는 것이다. 또한 A교사는 음악적인 모델을 학생들에게 보여 주기보다 설명식 수업을 많이 하였다. 이는 A교사가 음악 수업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다. 반면, 전공이 음악 심화인 B교사는 교과서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꼭 가르쳐 주어야 할 내용만을 학생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다. 이와 같이, A, B 두 교사는 자기 나름의 교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A교사는 부족한 부분을 교사용 지도서를 최대한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택하였고, B교사는 수업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제

의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3. 수업 정리 부분: '잘 가르쳤다'는 성취감

수업의 정리 부분은 설정한 학습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 나타난 두 교사의 수업 정리 부분은 수업한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거나, 학습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수업할 내용을 예고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A교사 수업

선생님: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녹음한 것을 한 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노래를 배우자. 다음 시간에는 감상곡
'운명 교향곡'에 대해서 배웁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자기
공책에 '종소리'라고 제목 적어놔지?

학생들: 네.

학생A: 차렷! 선생님께 경례!

선생님과 학생: 수고하셨습니다.

A교사는 수업 정리 부분에 학생들의 노래 부르기와 연주를 녹음하여 다시 들려주는 활동을 자주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교사에게 오늘 학습한 내용이 학습 목표에 잘 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녹음한다는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좀 더 잘 불러야지 하는 마음을 촉발하게 된다. 그리고 A교사는 수업이 끝날 때에도 인사로 수업이 끝났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수업이 끝나는 인사를 하는 동안에, 학생들은 책을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하면서 인사를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A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과 같은 부정적 강화는 실시하는 경우는 없었다.

B교사는 수업 정리 부분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발문에 대해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이 부족하여 그들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B교사 수업

선생님: 다시 오늘 배운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것? (칠판을 가리키며) 라단조다. 다시 해보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뭐냐 하면 어이! 잘 들어! 이제 음계를 아니까, 다음에 뭐 공부해야 될까? 다음 시간에 무엇을 공부할까? 이야기 해보자.

학생A: 직접 쳐보는 거요.

선생님: 직접 쳐보는 것, 또? 너희들 바장조 음계 다 알지? 다음 시간에는 라단조의 음계로 화음을 직접 만들거야.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도 멜로디언 준비해오고, 오늘 배운 내용은 공책에 정리 다 해 놓을 것! 알겠지! 자 이제 마친다.

수업 정리 부분은 그 날의 수업이 학습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 확인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A, B 두 교사는 정리 부분에서 학습 목표에 잘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악적 활동과 언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A교사는 가끔 학생들의 활동을 녹음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이때 학생들은 녹음에 대한 흥미와 더 잘해보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B교사는 전개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나머지, 수업의 정리 단계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B교사는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친절하게 알려주고 준비물도 꼼꼼히 제시하였다. B교사는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는 과제를 내기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 과제를 검사하지는 않고, 발표를 통해 과제 검사를 대신하였다.

VI. 결 론

두 교사의 초등학교 음악 수업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두 교사 모두 음악 수업에서 노래부르기, 악기연주하기, 신체표현하기, 곡만들기와 같은 교사의 음악 모델링은 거의 미미하였다. 특히 A교사는 ‘곡만들기’

활동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B교사는 ‘신체표현하기’를 한 번도 제시하지 않았다. 음악 수업에서 교사의 음악 모델링은 학생들에게 음악의 이해를 돕고 올바른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본보기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 수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음악 모델링을 활발하게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질문’과 ‘응답’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A, B 두 교사의 ‘발문’은 지난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마찬가지로 학생들 ‘질문’ 역시 음악 수업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것들뿐이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지적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과 ‘응답’ 활동을 유발하고 촉진할 수업 전략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교사는 음악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전달하려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생각과 느낌을 발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활동 유형 측면에서 여전히 ‘전체학습’ 비중이 높은 편이다. 결국 전체학습 비중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음악 수업이 획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악은 개인적 차이가 많이 나는 수업이라는 점을 감안 한다면 교사들은 지금과 같은 전체학습 위주의 음악 수업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음악 수업의 내용과 물리적 조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개별학습, 조별학습, 전체학습의 비중을 유기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넷째, 좋은 음악 수업이라는 것은 음악에 대한 개념과 지식들을 배우는 언어적 활동하기, 노래, 악기연주, 신체표현, 창작, 감상, 평가 등의 다양한 음악적 활동 그리고 음악을 자기 수준에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정의적 측면 까지 어느 하나에 치우침 없이 균형감 있게 가르치고 배울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그러나 A, B 두 교사의 수업은 언어적 활동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다. A교사는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설명식의 ‘강의’가 많았다. 이에 반해 B교사의 경우 ‘지시’가 많았는데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이 활동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교사다 언어 중심활동이 많이 일어났지만 교사의 교수 유형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활동의 경우에도, A교사 반의 학생은 ‘음악듣기’, ‘곡만들기’,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에 편중되어 있고, B교사 반의 학생 역시 ‘노래부르기’, ‘교사·멀티미디어 따라하기’, ‘악기연주하기’에 편중되어 있다. 그러나 ‘신체표현하기’와 같은 활동은 극히 미미한 편이고,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박수치는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이 음악 활동을 통해 음악을 느끼고 새롭게 경험하는 사례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음악 수업은 언어적 활동과 다양한 음악적 활동,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기 활동의 측면이 수업의 도입, 전개, 정리 부분에서 균형 있게 조직되고 전개되어 가는 방향으로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제7차 음악과 교육과정. 서울: 교육부.
- 교육부(2003). 음악 6 교과서. 서울: 교육부.
- 권낙원(2001). 교수 방법. 서울: 원미사.
- 길병희(2001). 행위 당사자 연구.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7집. pp. 357-379.
- 길양숙(1999). 중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하는 수업 방법 및 교수 행동 분석. Vol. 17. pp. 301-331.
- 김명숙(2003). 초등학교 음악과 수업시간 실태 조사. 2003년 제34회 학술세미나 집. 한국음악교육학회.
- 김재춘(2005). 누리사업 관련 수업 촬영 및 분석을 통한 교수법 개발. 임베디드기술 인력양성사업단.
- 김정원(1997). 초등학교 수업에 관한 참여관찰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서·김영찬(1983). 수업형태 분석. 서울: 교육과학사.
- 배호순(1991). 수업 평가. 서울: 양지원.

- 변영계(1997). 수업 장학. 서울: 학지사.
- 석문주(2002). 다중지능이론을 적용한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개발과 실천. 음악교육연구. 제22집. pp. 29-57.
- 이용숙(1988). 초등학교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 -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이용숙(1993). 실제학습시간 비교 분석을 위한 인류학적 연구 방법(질적·양적 접근 방법의 통합적 적용). 비교문화연구. 제1호.
- 이용숙(1995a). 초등학교의 교과 편제와 시간 배당 국제 비교. 교육월보. 8월.
- 이용숙(1995b). 수업 중 실제학습시간 확대를 통한 초등학교 수업 방법의 개선.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 논총. 제7집. pp. 45-76.
- 주삼환·이석열·김홍운·이금화·이명희(1999). 수업관찰과 분석. 서울: 원미사.
- 최은식(2001). 음악교사의 교수행동에 있어서 비언어적 교수방법 변인의 상호관련성 및 효과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제20집. pp. 175-197.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2). 초등학교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연구. 연구보고 RRC 2003-14-3.
- 현경실(1999).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실태조사. 음악교육연구. 제18집. pp. 51-71.
- 현경실(2000).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실태조사Ⅱ. 대구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논총. 제15집 pp. 99-124.
- 황인영(2004). 초등 음악수업에 있어서 교사의 교수 행동 분석. - 음악과 수업연구 대회 수상작을 중심으로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very. Susan J.(2001). *Vision 20/20 and In-service Education for Music Teacher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Eastman School of Music, University of Rochester.
- Boardman. Eunice(1998). The generative Theory of Musical Learning. Part I: Introduction. *The Journal of the Society for General Music*. vol 2. no.1. pp. 4-30.
- Eisner, Elliot W.(1998). *The Enlightened Eye*. Prentice Hall, Inc. 박병기·박성혁·박승배·서유미·서혁·안금희·유현주·이경한·이종영·임미경·최

- 경희 역(2001). *질적 연구와 교육*. 서울: 학이당.
- Elliott, David J.(1995). *Music Matt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mmanuel, Donna T.(2002). *A Music Education Immersion Internship: Pre-Service Teachers Beliefs Concerning Teaching Music in a Culturally Diverse Setting*. Submitted to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Philosophy Department of Music Education
- Evely K. Orman(2002). Comparison of the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and Elementary Music Specialists Use of Class Time.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Summer 50, 2. Academic Research Library.
- Goolsby, Thomas W(1996). Time Use in Instrumental Rehearsals: A Comparison of Experienced, Novice, and Student Teacher.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 no. 4. winter, pp. 286-303.
- Langer, Susanne K.(1957). *Problems of Art*. 박용숙 역(1999).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문예출판사.
- Madsen, Clifford K. and Prickett, Carl A.(1987). *Application of Research in music Behavior*.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Meek, Michal W(1999). *Initial Presentation of Repertoire: Rehearsal Behaviors in Selected secondary Shool Choi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labama.
- Moore, K. D.(1995). *Classroom teaching skills*(3rd ed). McGraw-Hill, Inc.
- Russell, J.(1997). *The Mediating Function of language in the Formation of Musical Knowledge, Musical Concepts and Musical*. Paper presented at AERA, Chicago, March. pp. 1-13.
- Susan J. Byo.(1999). *Classroom teacher and Music Specialists Perceived Ability to Implement the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Summer 47, 2. Academic Research Library.

ABSTRACT

An Analysis of Music Class on the Actual Condition in Elementary Schools

Myung-Sook Kim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for what types of using time could be represented, and how teachers give lessons in music class of elementary schools. The objects of investigation are two teachers in charge of 6th-year classes. We use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nalyses.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studied the dividing rate of using class hour for teachers and students, and analyzed teachers' teaching methods through the qualitative analysis.

In view of the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we could know that music class is usually run by students' activity. Teachers used more time in verbal methods of teaching, rather than in nonverbal methods of teaching. Among others lecturing and directing time was at a high rate, but modeling time was at a very low rate. Students' activity held much time in a whole class hour and shows various things. However students' activity was done at the dictation of teachers.

In view of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analysis, we could find out that music class is taught in regular sequence(introduction - development - arrangement) presented in a curriculum. Introduction was a process grasping the students' levels. In development process, music class was run by teacher's lecture and students' activity, and was teacher-centered. Arrangement was a process confirming whether the students reached the goal of class.

Keywords: elementary school, music class, instruction analysis